

코로나에 멈춰 선 광주... 택시기사 월 50만원 덜 벌었다

7~8월 1대당 일 매출 1만5500원 감소...전년비 9.1% ↓ 지하철, 756만명 줄어든 1903만명 이용...3월 41% 급감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이들이 줄면서 올해 7~8월 광주지역 택시 1대당 하루 매출이 15만4500원으로, 1년 전보다 1만5500원(-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31일) 감소분으로 치면 48만원 가량 덜 번 셈이다.

올해 들어 광주 지하철 이용객 수는 지난해보다 756만명(-28.4%) 급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광주 법인택시 1대당 일평균 매출액은 15만8000원으로, 1년 전(17만5000원)보다 9.7%(-1만7000원) 감소했다.

광주 택시 매출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지난 3월과 7~8월 급격히 떨어졌다. 올해 1월 광주 택시 일평균 매출은 17만4000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4만2000원(31.8%)이나 많았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월 15만원으로 감소하고 3월에는 13만8000원으로 더 떨어졌다. 행정철인 4월(14만9000원)과 5월(16만7000원), 6월(17만1000원)에

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한 7~8월은 각각 15만1000원, 15만8000원으로, 6월보다 2만원 가량 매출이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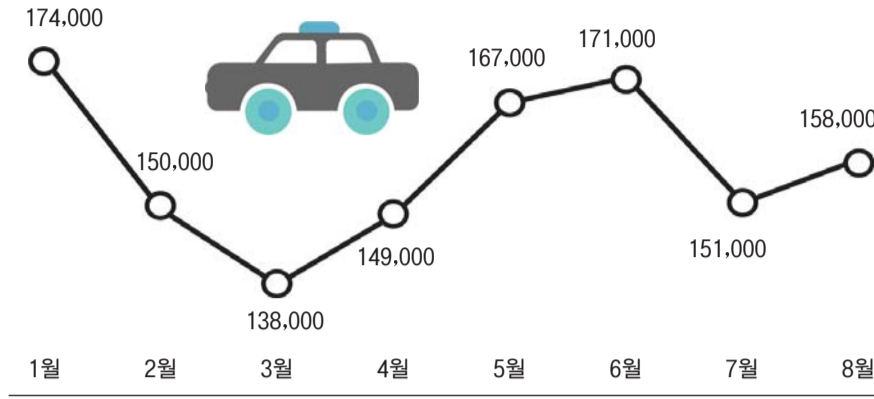
올 7~8월 광주 법인택시 1대당 하루 평균 매출은 15만4500원으로, 1년 전(17만 원)보다 9.1%(-1만5500원) 감소했다. 경북(-11.8%), 부산(-9.9%) 등과 함께 감소 폭이 높은 편이다.

서울시와 세종시를 제외하고 8월 일평균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지역은 강원(-2만3000원), 부산(-2만2000원), 경기(-1만7000원), 경남(-1만6000원), 전북(-1만1000원), 울산(-6000원), 경북(-2000원) 등 총 10곳이었다.

하루 매출이 오른 곳은 충남(2만5000원), 충북(2만1000원), 전남(4000원), 대구(1000원) 등 4곳이었다.

광주 법인 택시기사들은 올 들어 1~8월 하루 평균 222km를 뛰었지만 실제 영업거리는 절반(53.2%) 수준인 118km에 그쳤다. 1일 평균 영업거리는 2월 113.6km, 3월

■2020년 광주 법인택시 일 평균 매출 (단위:원)



(자료:국토교통부·소병훈 의원실)

103.7km, 4월 112.1km, 5월 125.5km, 6월 128.3km, 7월 113.4km, 8월 118.3km 등 올 1월(131.4km)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과 8월 영업거리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각각 8.3%(-10.2km), 9.9%(-13km)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중교통인 지하철 이용객 수도 올 들어 700만명 넘게 줄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9월13일까지 광주지역 도시철도 이용객 수는 1903만여 명으로, 1년 전 같

은 기간(2659만명) 보다 28.4%(-756만명) 급감했다.

월별로 보면 '신천지발' 확산이 절정에 달했던 3월 이용객 수가 41%(-135만명) 줄어들며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이용객 수는 1월(-4.7%), 2월(-17.3%), 3월(-41%), 4월(-36.9%), 5월(-29.5%), 6월(-17.3%), 7월(-37.6%), 8월(-34.6%) 매달 하락세를 나타냈다. 월 이용객 수가 200만명을 넘지 못한 달은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심했던 3월(194만명)과 8월(197만명)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380.48 (-22.67)
- ↓ 금리(국고채 3년) 0.913 (-0.010)
- ↓ 코스닥 861.48 (-10.44)
- ↓ 환율(USD) 1146.90 (-0.20)

0.5% 한은 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14일 결정했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 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하지만 이후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만큼 7월과 8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째 '동결' 외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와 격차는 0.25~0.5% 포인트로 유지됐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세계경제 부진이 완화되는 속도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 등으로 다소 둔화됐다"며 "국내경제도 더딘 회복 흐름을 보였다. 수출 부진이 완화됐지만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미약한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되고 건설투자 조정도 이어졌다. 큰 폭의 취업자 감소 등에 고용 상황도 계속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하겠지만,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라는 게 금통위의 시각이다.

/연합뉴스

임곡농협 추수 대행 한창

광주 임곡농협이 최근 광산구 오산동농지에서 '농작업대행' 벼 수확을 하고 있다. 임곡농협은 20여 직영농가를 대상으로 35ha 규모 농작업 대행을 하고 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 제공>



금호타이어, 고속도로 휴게소서 무상 점검

오늘~16일...신제품 홍보도

금호타이어는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타이어 무상점검 서비스 및 안전운행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송산포도(평택방향), 여주(강릉방향), 신탄진(서울방향), 청도새마을(부산방향) 등 전국 4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된다.

해당 휴게소를 방문하는 트럭, 버스 운전자들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금호타이어 전문기공사로부터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 상태 점검 등 안전점검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타이어 안전관리요령 안내와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방문 고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할 방침이다.

여기에 금호타이어는 트럭·버스용(TBR) 타이어 신제품 'KRA60'에 대한 제품 홍보 활동도 진행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신보재단, 소상공인 방문 컨설팅 시작

전남신보재단은 오는 19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찾아가는 행복드림 컨설팅'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등으로 매출 부진을 겪은 다중채무자와 사업체이다.

이 프로그램은 금융복지상담센터, 지역업종지원센터가 협업해 진행한다.

전남신보의 자체 채무조정 및 채무관련 법률상담과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제도 지원, 재무컨설팅, 복지제도 연계 등이 지원된다. 전남신보는 비대면 상담과 정기적

출장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다. 먼저 기본상담을 한 뒤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보 직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한다.

전남신보는 지난 달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영업점에서 보증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문상담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양수 이사장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다중채무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영세 사업자와 도민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 인공지능 이용 가스터빈 압축기 운영기술 개발

한국전력은 독일 지멘스와 공동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가스터빈 압축기 성능저하 예측 기술'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스터빈은 압축된 공기를 연료와 함께 고압 조건에서 연소시킨 가스로 터빈을 회전시키고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다. 장기적으로 운전하게 되면 공기를 압축시키는 압축기가 미세먼지 등으로 오염돼 가스터빈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또 압축기 오염은 구조가 복잡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움에 따라 발전소는 주기적으로 압축기 블레이드에 부착된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세정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전은 불필요한 세정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스터빈 발전소 효율 향상과 외국 가스터빈 제작사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위해 지

난 2월 독일 지멘스와 협력 공동연구를 진행해 이번 예측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 기술은 발전소 계측설비에서 실시간으로 얻어진 온도, 습도, 운전상태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에 입력해 가스터빈 압축기의 성능 저하와 압축기 오염도를 예측하는 기술이다.

발전소 운전자는 압축기 세정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한전은 이번 기술을 활용하면 연간 3회 세정 횟수가 줄고, 향후 국내 발전소가 보유한 가스터빈 74기에 적용하면 연간 44억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자체 연구를 통해 공기 필터 교체 주기 최적화 프로그램도 개발 예정"이라며 "해외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스터빈 핵심 기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백희준 기자 bhj@

평범한 사람의 **사회생활** 이야기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냐 안 들 것이냐가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냐 죽게 될 것이냐가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냐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악수하기에 바빠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서점 판매 | 광주(충장서림, 삼복서점, 초원서점), 순천(중앙서점), 여수(대양서림), 전주(웅진서적, 민중서관, 흥지서림)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에스24, 알라딘, 영풍문고(배송료 무료)